천년의 맛과멋 전남
호남매일tv
E-mail. ko930112@naver.com

호남매일

광주시 북구 우치로 649(생용동)
www. cinemapark.kr
시네마 파크 cinema park 광주자동차극장
TEL : 062-575-5717~8

제 5297호 2000년 7월 25일 창사 homae.co.kr 2023년 1월 31일 화요일 (음력 1월 10일)

마스크 벗고 쇼핑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날인 30일 오전 광주 동구 한 백화점에서 손님들이 마스크를 벗은 채 쇼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노마스크’ 첫 날…시민 반응 교차

1020세대 “홀가분” 반색…중장년층 “당분간 쓸 생각”

“숨 쉬기 편해서 살 것 같아요.” “아직 종식된 것도 아닌데…”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완화된 30일 광주시민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이날 오전 광주 서구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대합실.

버스 탑승을 기다리고 있던 승객 중 대부분은 마스크를 코까지 바짝 올려 쓰고 있었다. 일행 간 대화를 자제하고 곳곳에 놓인 손 소독제를 이용하는 등 바이러스 전파를 경계하는 분위기는 여전했다.

반면 또래들과 삼삼오오 여행에 나선 10~20대는 거리낌 없이 마스크를 벗거나 턱에 걸친 채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배모(20 · 여)씨는 “방역 지침 완화로 대부분의 실내에서 눈치 안 보고 마스크를 벗을 수 있어 기쁘다. 마스크를 벗고 있으니 한결 숨쉬기 편하고 화장 지워질 걱정도 덜 하다. 친구들과 모처럼 떠나는 여행에 추억이 될 사진도 많이 찍을 생각이다”고 말했다.

친구들과 여수로 향하는 이모(18)군은 “다들 코로나19에 한 번씩 걸렸고 백신 접종도 모두 마쳐 마스크를 벗고 있어도 전혀 불안하지 않다”며 “거추장스러운 마스크를 여전히 들고 다녀야 하지만 여행을 보다 홀가분하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다”며 밝게 웃었다.

이군 일행은 승차 시간이 임박하자, 외투 주머니에 넣어뒀거나 손에 들고 있던 마스크를 쓰고 버스에 올랐다.

중 · 장년 승객들은 마스크 착용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마스크 착용을 깜빡 잊거나 간식을 먹고 있던 극소수를 제외하면 대부분 마스크를 썼다. /뉴시스

광주시-시의회 “시민 행복 동반자” 다짐

강기정 시장 “혁신 동반자” 정무창 의장 “발전 견인차”

3월 조기 추경 합의…잇단 소통 통해 갈등 털고 화해

지난해 말 본예산 심의를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은 광주시와 시의회가 잇단 소통을 통해 극적으로 화해하고 ‘시민 행복의 동반자’ 역할에 뜻을 같이했다.

강기정 시장은 30일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지난 본예산 심의 과정은 시의회와 집행부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줬다”며 “그 교훈에 힘입어 지난 27일 제2차 광주전략회의에 모두가 모였고 논의를 통해 원활한 예산 편성과 심의를 위한 대원칙을 확립했고, 민생 안정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 재정 정책으로 대응하자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시정연설 대부분을 할애해 2023년 시정방향을 조목조목 설명한 뒤 “시의회와 집행부는 광주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혁신의 동반자가 되기로 했다”며 상생과 협치를 강조했다.

이어 “민선 8기는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이제는 행정에서 ‘혁신’을 추구하겠다”며 “시의회도 눈에 보이는 변화, 손에 잡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정무창 의장은 계묘년 첫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시민 뜻과 생각을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시킴으로써 시의회가 광주시정의 동반자 역할을 넘어 시정을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시경(詩經) 소아 편에 나오는 ‘유유녹명’, 즉 사슴은 동물 중에 유일하게 먹이를 발견하면 혼자 먹지 않고 배고픈 동료들과 함께 먹기 위해 소리 높여 운다는 글귀를 인용한 뒤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잘 살자는, 대동정신이자 협업 정신”이라며 “함께 잘 살기 위한 전제는 사전 소통과 양보, 타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과 협치의 기조로 자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시민행복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가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시민참여 의정과 의회 독립성 확보, 일하는 의회문화 정착 등도 혁신과제로 제시했다.

앞서 시와 시의회는 지난 27일 올해 첫, 민선 8기 들어 두 번째 광주전략회의에서 가뭄 극복과 청년 취업, 시정 현안 등을 다룰 1차 추경을 3월에 조기 추진키로 합의하고, 이어진 만찬에서도 2시간 가량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협치와 상생에 공감대를 이뤘다.

지난해 말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른바 ‘쪽지 예산’과 시정 현안 사업비를 둘러싼 양측의 불협화음으로 막대한 예산이 증액없이 삭감되면서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 데 대해 양측 모두 위기감과 공감대가 형성된데 따른 극적 화해로 풀이된다. /조일상 기자

전방 · 일신방직 부지 설계공모 2면
이재명, 2차 소환 출석 응해 3면
가스요금 추가인상 불가피 4면

‘깡통전세사기’ 막는다…시·검·경 공동대응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 첫 회의…지역 내 유사피해 예방

이른바 ‘무자본 깡통 전세’ 보증금 사기 피해 예방과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광주시와 검 · 경이 공동 대응에 나선다.

30일 광주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시와 광주지검 · 광주경찰청은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꾸려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열었다.

서울 강서구 등 수도권에서 ‘무자본 갭 투자’로 매입한 빌라에 임차인을 들여 전세 보증금만 가로채는 사기가 횡행하고 있는 만큼, 지역 내 유사 사기 피해는 없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다.

지역에선 아직 이렇다 할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보증금 사기 범행이 포착되면 조사 · 수사 내용을 상호 공유하며 공동 대응키로 했다.

앞서 광주경찰청은 광주지검과 함께 검 · 경 수사 협의체를 구성해 기존 전세 보증금 사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정모(51)씨를 구속 송치한 바 있다. 또 공범인 부동산 컨설팅업체 직원 · 가짜매수인(바지 사장)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정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매매가를 웃도는 임차보증금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갭 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 주택 400여 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480억여 원을 반환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컨설팅업체 직원 등은 정씨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압류 직전인 신축 빌라의 매매가를 한 번 더 높인 ‘업(UP)감정 계약서’를 꾸민 뒤 명의를 허위 이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와 공모한 컨설팅 업체 일당은 올린 매매가로 ‘바지 사장’ 2명과 허위 매매를 꾸민 뒤 다시 한 번 다른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받은 전세 보증금을 추가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도기 기자